

중세국어 의문법 '-ㄴ다'계 어미의 소멸 원인

이승희*

1.

지금까지 중세국어 의문법 체계가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그 다양성 때문이었다. 중세국어 의문법 체계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을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의문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의문법어미 '-가 : -고'의 대립이 있었고, 명사에 직접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첨사 '-가, -고'가 존재했고,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직접의문과 대립하여 화자의 내적인 의심이나 의혹을 표시하는 간접의문의 어미 '-ㄴ가/고, -ㄹ까/꼬'가 존재했으며,¹⁾ 훈라체에서 주어의 인칭에 따라 1·3인칭 주어에 대해서는 '-니아/나오, -리아/리오'가, 2인칭 주어에 대해서는 '-ㄴ다, -ㄹ따'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점 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이다.

* 박사과정

1) 간접의문을 표시하는 어미 '-ㄴ가/고, -ㄹ까/꼬'가 1·3인칭 주어와만 일치한다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화용론적인 제약인 듯하다. 청자는 관계 없이 화자 자신의 내적 의혹이나 의심을 나타낼 때에는, 비록 그 의혹이 청자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표면상으로는 그 주어를 3인칭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국어 시기에 들어서면서 설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의 구분 없이 '-가'계 어미로 통일된다든가, 의문첨사가 점차 소멸된다든가, 간접의문의 '-ㄴ가/고, -ㄹ까/꼬'가 직접의문으로까지 쓰임이 확대되고, 주로 2인칭 주어에 대해 사용되었던 '-ㄴ다, -ㄹ따'가 차츰 사라지게 되는 등의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도 많이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의 계기(혹은 원인)를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본고에서는 중세국어 의문법 어미 중에서도 특히 흐라체에서 2인칭 주어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던 '-ㄴ다, -ㄹ따'의 소멸이라는 통시적 변화에 주목하여,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 영향을 준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를 위해서는 우선 의문법 체계 안의 다른 의문법 어미들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어미들이 각각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의문법 체계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의 변화만을 따로 떼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ㄴ다, -ㄹ따'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다른 의문법 어미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사이를 구분하는 '-가 : -고'의 대립은, 2인칭 주어와 일치하는 흐라체의 의문어미 '-ㄴ다, -ㄹ따'를 제외하고는, 의문첨사 '-가, -고'를 비롯하여 직접의문의 '-나아/나오, -리아/리오', '-니잇가/니잇고, -리잇가/리잇고', 간접의문의 '-ㄴ가/ㄴ고, -ㄹ까/ㄹ꼬'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그런데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의문문에서도 '-가'계 어미가 사용되는 예들이 쓰이기 시작했다. 18세기 문헌인 《박통사신석언해》와 《중간노절대언해》에 등장하는 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그. 驛丞이 다 어더 갓느냐 (박신 2: 15)
ㄴ. 쏘 무서시 있느냐 (중노 하: 2)

- ㄷ. 었디 일을 더디 아니흐랴 (박신 1: 15)
 ㄹ. 뇌 밧과 나가매 집을 이고 도니랴 (중노 상: 40)
 ㅁ. 네 었지 반드시 쪼 일정 가보고져 호는가 (박신 3: 48)

이러한 경향은 점점 심화되어 결국 일부 방언을 제외한 현대국어에서는 의문사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의문어미가 '-가'계로 통일되어 있다. '-고'계 대신 '-가'계가 선택된 것은, 전자의 경우는 이미 문장 안에 존재하는 의문사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설명의문문'을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 경우에는 의문법어미가 판정의문문과의 변별성을 보여야 하는 기능 부담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존재해야 할 필요성도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²⁾

다음으로, 중세국어에서 명사서술어를 갖는 의문문은 '명사+의문첨사'나 '명사+계사+의문법어미 -ㄴ가/-고'의 두 가지 방법으로 형성되었는데,³⁾ 전자의 예가 근대국어 시기까지도 꾸준히 등장하기는 하지만 차츰 후자의 예가 더 빈번히 나타나더니 결국 현대국어에서는 의문첨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역시 명사서술어의 의문문과 용언서술어의 의문문 사이의 구분을 없앰으로써 의문법체계의 통일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ㄴ가/고, -ㄹ까/꼬'는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1·3인칭 주어와 일치하여 간접의문에만 사용되다가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직접의문으로까지, 그리고 2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고 알려져 왔으나, '-ㄴ가/고, -ㄹ까/꼬'가 직접의문에 사용된 예는 이미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2) 특정한 어미 대신 억양과 문맥을 통해 설명문, 의문문, 명령문이 구별되는 '해'체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해'체에서 의문문은 보통 상승조의 억양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설명의문문의 경우에는 상승조의 억양이 없어도 충분히 의문문이 성립되는 반면, 판정의문문의 경우는 상승조의 억양이 거의 필수적이다.

(예) 너 언제 떠나? : 너도 사과 먹어?

너 언제 떠나? : *너도 사과 먹어?~

3) 그 두 경우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은데,

ㄱ. 이 두 사르미 眞實로 네 향것가 (월석 8: 94)

ㄴ. 이 아니 내 鹿母夫人의 나흔 고진가 (석상 11: 32)

의문첨사가 쓰인 경우와 '계사+의문법어미'가 쓰인 경우 사이에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현희 1982). 다음이 바로 그 예이다.

- (2) ㄱ. 尊者비 가아…술보더 尊者 | 모르시는가 (월석 4: 26)
 ㄴ. 諸人衆들하…請乞수보더 世尊하…엇데 說法 아니호려 흐시는고 (월석 4: 48)
 ㄷ. 便安히 있는가 高僧事 1여 (두시 21: 12)
 ㄹ. 王이 널오더 어더 보수를까 (석상 24: 43)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ㄴ가'계가 간접의문문에서 1·3인칭 주어와만 일치하는 예를 보이는 것은, 화자의 내적 의심이나 의혹의 경우는 혼잣말의 성격을 떠므로 청자가 주어가 되어야 할 때조차도 2인칭 주어 '네'를 내세우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직접의문문에 쓰이게 되면서부터는 이러한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

- (3) ㄱ. 모슴 데호신 원판형님하 어듸 가시는고 (번박 상: 7)
 ㄴ. 나그네네 모슴 음식 머글고 (번노 상: 61)
 ㄷ. 네 이 뒤 그믐의 北京의 짙가 (번노 상: 2)

간접의문의 '-ㄴ가/고, -ㄹ까/꼬'가 직접의문으로 사용되면서 높임법 등급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간접의문은 본래 청자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상대높임법이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직접의문으로 사용되면 결국은 흐라체에 가까운 등급을 차지하게 될 것이나, 이 '-ㄴ가'계는 흐라체와는 달리 2인칭 주어가 화자보다 上位者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런 경우에 (4-7)처럼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통합되는 양상을 보였다.⁴⁾ 이현희(1982)에서는 '-ㄴ가'계가 근대국어 단계에 흐야씨체와 흐라체의 중간 정도 등급으로 새로이 등장한 흐소체의 의문법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보았다.⁵⁾

한편 이 외에도 시제적인 대립을 보이던 '-나이'계와 '-리아'계가 현대국어에

4) 현대국어에서는 이 직접의문법 '-ㄴ가, -ㄹ까'의 영역이 '요'가 통합된 '-ㄴ가요, -ㄹ까요'에 의해 높임법 등급상으로 더욱 넓어졌음을 볼 수 있다.

5) 허옹(1977)에서도 '-ㄴ가'계가 '-으니잇가'보다는 낮고 '-니다'보다는 높은 말씨라고 설명하였다. 허옹(1977)에서는 '-고, -가'가 직접의문에 쓰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등급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즉, 이 시기에 '-으니잇고', '-으니잇가' 형보다는 낮으나 '-온다'보다는 높은 말씨가 요구되어 '-온다'에 '-으시-'를 넣어 청자를 약간 높이려 했으나, '-온다'가 본래 흐라체로 청자를 높일 수 없는 관계로 '-으신다' 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뜻을 가진 '-으신가'가 이에 대치되었다는 것이다.

서는 전자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도 흥미롭다. 물론 현대국어에서도 '-리아'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수사의문 같은 한정된 경우에, 게다가 매우 관용적인 표현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듯하며,⁶⁾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한 '-겠느냐' 등이 '-리아'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이상으로 인칭에 따른 구분을 보이는 의문법 어미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의문법 어미들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의문법 체계 전반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흐름을 요약해 본다면 될 수 있는 한 의문법 형태를 단일하게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의문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고'계 어미와 '-가'계 어미로 구분되어 사용되던 것이 의문사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 없이 '-가'계 어미 하나로 통일된 것이나, 의문첨사가 사라짐으로써 명사서술어의 의문문과 용언서술어의 의문문 사이의 구분이 없어진 것은 모두 의문법 체계의 통일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간접의문의 '-ㄴ가'계가 새로이 직접의문의 어미로 등장한 것은 일견 의문법 체계의 통일화라는 큰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 이 변화는 간접의문에만 사용되던 것이 직접의문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간접의문 對 직접의문의 구분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의문법 체계의 통일화라는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⁷⁾ 더구나 '-ㄴ가'계 어미는 새로 등장한 높임법 등급에 의문법어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어말어미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빈칸을 메꾸어 주었다.

3.

이제 본고의 초점이 되는 '-ㄴ다, -ㄹ따'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은 중세국어의 의문법 체계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우선, 당시 의문법 체계 전반에 걸쳐 나타난 보편적인 특징인 설명의문문 對 판정의문문의 구별이 보이지

6) '아니 땐 꿀뚝에 연기나라, '첫 술에 배부르랴' 등의 속담을 통해서, 또는 타이틀이나 권고 등을 수사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주로 발화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듯하다.

7) 그러나 '-ㄴ가'계를 대신하여 간접의문을 표시하는 '-ㄴ디', '-ㄴ동'이 새로 등장하였다.

않았다는 점이 그렇고, 호야씨체나 호쇼서체에서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 의문법 어미가 달리 나타난 예가 없는데 유독 호라체에서 2인칭 주어를 가지는 경우에 이처럼 특이한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체계의 통일성에 부담을 안겨 준다.⁸⁾ 또한 형용사와는 통합하지 않는 제약을 보인다는 사실도 문제이다.⁹⁾ 따라서 근대국어 시기에 와서 의문법 체계의 통일화가 진행될 때 '-ㄴ다', '-ㄹ때'는 가장 먼저 변화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미 15세기 자료에도 2인칭 주어가 '-ㄴ다' 대신 '-니아/니오'와 일치하는 예가 나타나고 있다.

(4) 그. 다시 물노라 네 어드러 가느니오 (두시 8: 6)

ㄴ. 그의 엎데 내의 許호물 아げる뇨 (내훈 3: 63)

'-ㄴ다', '-ㄹ때'가 쓰일 곳에 '-녀/뇨', '-려/료'나 '-ㄴ가', '-ㄹ까'가 사용되는 예들은 17·18세기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단적인 예로 《번역박통사》와 《박통사언해》, 《박통사신석언해》에서 같은 부분이 시대에 따라 각각 어떻게 달리 언해되었는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¹⁰⁾

(5) 형아 네 드른다 (번박 상: 53)

형아 네 드런눈다 (박언 상: 48)

큰형아 네 일즉 듯보았는냐 (박신 1: 51)

이와 같은 '-ㄴ다', '-ㄹ때'의 소멸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

8) 호쇼서체-2인칭: 世尊하 손지 世間에 겨시더니잇가 (월석 18: 36)

1·3인칭: 여슷 하느리 어늬사 稱호니잇가 (석상 6: 35)

호야씨체-2인칭: 그더는 아니 들판별더시낫가 (석상 6: 17)

1·3인칭: 그의 아바니미 있느낫가 (석상 6: 14)

*호라체-2인칭: 그의 엎던 사루민다 (월석 10: 29)

1·3인칭: 네 겨자비 고분니여 (월석 7: 10)

9)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에 대한 서술어로서 형용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그리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나아'계의 경우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예) 그. 나고저 식브녀 (월인천강지곡 132)

ㄴ. 네 날 □□호야 축호니여 (월석 4: 66)

10) 김완진(1975, 1976)과 주경미(1996) 참조. 특히 후자에서는 16세기 자료인 《번역박통사》, 《번역노걸대》와 17세기의 《박통사언해》, 《노걸대언해》, 18세기의 《박통사신석언해》, 《중간노걸대언해》에 나타나는 의문법어미를 비교하고 그 통시적인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되어 왔다.

첫째, 안병희(1965)에서는 이 문제를 의도법의 쇠퇴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ㄴ다, -ㄹ따' 의문이 화자가 청자에게 의도를 가지고 판정하고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직접의문, 즉 '청자의 의도를 표시하는 의문'이라고 규정하고, 1인칭 주어의 의도를 표시하는 선어말어미 '-오-'가 16세기 이래로 점차 쇠퇴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청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ㄴ다, -ㄹ따'도 쇠퇴하게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동법 선어말어미 '-ㅅ-'의 통합 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측면을 보여 준다. 즉 '-돛-, -웃-, -ㅅ-'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형태라고 생각되는 '-ㅅ-'은 15세기에 이미 매우 제한된 분포를 보이는데, 그 제한된 분포가 주어의 인칭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이다. 즉 1인칭 주어에 대해서 인칭법의 선어말어미 '-오-'와 통합된 '흐소라, 흐소이다, 흐소니'의 어형으로 나타나고, 2인칭 주어에 대해서 의문법 어미 '-ㄴ다'와 통합된 '흐순다, 흐느순다' 어형으로만 나타나고 있다(이승희 1996).

둘째로, 서술어가 동사의 현재형일 때의 설명법이 '-느다>-ㄴ다'로 변화하면서 직접의문 '-ㄴ다'와 일종의 同音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¹¹⁾ '-느다>-ㄴ다'의 변화는 16세기 자료에서부터 나타났었다.

- (6) ㄱ. 經에 니르샤티 無常 브리 한 世間을 순다 흐시며 쪼 니르샤티 衆生의 苦
 르온 브리 四面 에 흐黠 븐느다 흐시며 (선가귀감 하: 50)
 ㄴ. 나미 날 아로를 구티 아니호다 흐거늘 (번역소학 9: 58)

또한, 17세기 후반 자료인 《박통사언해》나 《노결대언해》를 보면 '-ㄴ다(<-느다)'가 본래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 선어말어미 '-ㄴ-'가 통합된 예도 나타난다.¹²⁾

11) 안병희(1965), 김완진(1975 ㄱ), 허웅(1977), 이현희(1982), 이현규(1995) 참조

12) 김완진(1975 ㄴ)에서는 현대국어에서 현재형 어미 형태소 /-ㄴ---는-/을 설명하기 위해서 '형태론적 증가'라는 기체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ㄴ---는-/이 서로 이형태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저형이 '-느-'라고 이해해야 하며, 이 '-느-'에서 모음 '으'가 탈락하는 음운규칙이 있어서 '-ㄴ-'가 나타나는데 다만 자음으로 끝난 동사 어간에서는 이러한 음운규칙의 적용이 발음 불가능한 형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7) ㄱ. 물엣거슬 먼는다 흐니라 (박언 하: 37)

ㄴ. 이 물이 쇼 | 거름 갓티 즈득즈득 겄는다 (노언 하: 37)

(6)과 (7)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설명법 '-느다>-ㄴ다'의 변화는 처음에는 내포문의 문말, 특히 모음으로 끝난 어간 뒤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해서¹³⁾ 점차 내포문이 아닌 主文에까지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¹⁴⁾ 그로 말미암아 설명법의 '(-느다>)-ㄴ다'와 의문법의 '-ㄴ다'는 동일한 형태를 지닌 채 모든 범위에 걸쳐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이러한 구조적 양상의 유사성을 피하려는 의도가 '-ㄴ다'의 소멸로 나타났다는 설명(김완진 1975↑, 허웅 1977, 이현규 1995)은 가장 일반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느다>-ㄴ다' 변화로 인한 동음어 충돌이 의문법 어미 '-ㄴ다, -ㄹ따'의 소멸을 모두 설명해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우선, '-느다>-ㄴ다'는 그 주어가 1·3인칭인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의문법 '-ㄴ다'의 주어는 2인칭에만 한정되어서 둘의 분포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동음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또한 형태상의 유사성이 없는 '-ㄹ따'의 쇠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단순히 '-ㄴ다'의 쇠퇴에 따른 부수적인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현상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금까지는 주로 '-느다>-ㄴ다'의 축약 현상이 먼저 일어나 의문법 어미 '-ㄴ다'의 소멸을 재촉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 그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나서 다른 한 편에 영향을 준 것인지 선후

해 다시 한 번 '-느-'가 결합된 '-느느-'에서 마지막 '으'가 탈락하여 '-는-'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13) 허웅(1977)에서는 설명법의 '흐느다'가 '흐다'로 변화하게 된 것은 발음을 간편하게 하려는 데서 오는 음성적인 현상인데, 이러한 변화가 인용문에서부터 나타나게 된 것은 내포문에서는 시제의 표시가 분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 이현규(1995)에서는 16세기의 《번역노걸대》와 17세기의 《노걸대언해》를 비교해 볼 때 16세기의 '-ㄴ다' 의문법이 17세기에 와서 전반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데 특히 의문사를 가지지 않는 판정의문문의 '-ㄴ다'부터 먼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문사가 없을 때 '-ㄴ다' 의문법은 서술종지 '-ㄴ다'와 완전일치하는 동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없어서라고 보았다.

순서를 결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흐라체의 2인칭 주어 의문문에서 '-ㄴ다' 대신 '-니야'계 어미가 사용된 예가 이미 15세기 자료에 등장했음을 앞에서도 밝혔거니와 의문법어미 '-ㄴ다'의 기능 약화가 '-느다>-ㄴ다'라는 동음의 어미구조체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그 결과 기능 약화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ㄹ따'의 쇠퇴와 관련해서는 《번역노걸대》나 《노걸대언해》에 '-ㄹ다'로 나타났던 것이 《중간노걸대언해》에서는 '-려 … -ㄴ다'나 '-려 … -뇨'로 대치된 예들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주경미 1996 참조). 이미 앞에서 의문법 체계 내에서 시제상의 대립을 보이던 '-ㄴ'계와 '-ㄹ'계 중 전자가 미래시제 선어말어미와 통합하여 후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 '-ㄹ따'가 '-려 … -ㄴ다(혹은 -뇨)'로 대체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경향의 일부분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¹⁵⁾

'-느다>-ㄴ다'의 축약 현상이 '-ㄴ다, -ㄹ따' 소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할 때 여기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해야만 한다. 간접의문의 어미 '-ㄴ가/-ㄴ고, -ㄹ까/ㄹ꼬'가 직접의문법에도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이 바로 그것이라 생각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이미 15세기 자료에서부터 직접의문에 사용된 예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일단 직접의문을 표시하게 된 후로는 자연히 2인칭 주어에 대해서도 쓰이게 되었으며, 간접의문의 특성상 상대높임법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이 직접의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이어져 [+높임]의 자질을 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흐라체에 가까운 등급을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직접의문에 나타나는 '-ㄴ가/-ㄴ고, -ㄹ까/ㄹ꼬'는 '-녀, -낫가, -니잇가', '-려, -릿가, -리잇가'로 짜여진 의문법 체계에 새로 끼어든 특이한 존재가 되며, 이는 기존의 '-ㄴ다, -ㄹ따'의 특이성과도 유사한 것이다. 이미 체계의 통일성을 가로막는 일탈된 존재로서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던 '-ㄴ다, -ㄹ따'는 자신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를 만나 그 존립에 있어

15) 주경미(1996)에서는 이 과정을 '-ㄴ다' 약화의 한 요인으로 보았다. 즉 설명법어미 '-ㄴ다'와 형태상으로 변별되는 '-ㄹ다' 어미가 수적으로 적어지고 '-ㄴ다' 어미는 많아져 설명법어미 '-ㄴ다'와 동음충돌을 일으킬 영역이 더 커진 것이 '-ㄴ다, -ㄹ다' 기능상실의 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서 큰 위협을 받게 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요인들은 '-ㄴ다, -ㄹ따'의 소멸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토대를 제공하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역시 의문법 체계를 뛸 수 있는 한 단순화하여 적은 수의 형태로 모든 의문법을 표시하고자 하는 '단일화의 경향'이 아니었을까 한다. 유독 흐라체의 2인칭에서만 특별한 의문법 어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언중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다시 말해 굳이 '-녀'와 '-ㄴ다'를 구분해서 써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변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리라 생각한다.

4.

이상으로 중세국어 의문법에서도 매우 특이한 존재인 '-ㄴ다, -ㄹ따'의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소멸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를 위해 우선 중세국어 의문법 체계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단일화 경향'이라는 큰 흐름을 따르고 있었음을 보았다. '-ㄴ다, -ㄹ따' 역시 체계 전반에 일어난 단일화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 자체가 본래 설명의문 \rightarrow 판정의문의 구분을 보이지 않는다는가, 2인칭 주어에 대해서만 사용된다든가, 형용사와는 통합되지 않는다는가 하는 특이한 양상과 제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사라지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ㄴ다, -ㄹ따' 소멸의 원인으로는 주로 의도법의 상실과 설명법 어미 '-느다>-ㄴ다'와의 동음 충돌이 언급되어 왔는데, 이 밖에 '-니야'계 어미의 사용이 확대된 것과 간접의문의 '-ㄴ가'계가 직접의문으로도 쓰이게 된 것도 변화의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의문법 체계 내에서 '-ㄴ'계와 '-ㄹ'계가 대립을 보이다가 '-ㄴ'계가 미래시제 선어말어미와 통합함으로써 '-ㄹ'계를 대체하는 경향의 일환으로 '-ㄹ따'가 '-려…-ㄴ다(혹은 -뇨)'로 대체된 것 역시 한 요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ㄴ다'와 '-ㄹ따'의 소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형태상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전반적인 의문법 체계 변화의 한 부분으로서 이 변화를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ㄴ다, -ㄹ따'의 문제를 고찰하는 작업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의문법 전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데도 여기에서는 제한된 자료들을 가지고 너무나 소략하게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지나친 부분이 많았다. 좀더 다양한 자료들을 시대별로 검토하여 의문법 체계의 전반적인 양상이 정리된 후에 비로소 '-ㄴ다, -ㄹ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김완진(1975-), <魏譯朴通事와 朴通事諺解의 比較 研究>, 《東洋學》 5 (단국대).
- _____(1975-), <音韻論的 誘因에 依한 形態論的 重加에 對하여>, 《國語 學》 3.
- _____(1976),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 研究》, 韓國研究院.
- 김정아(1985), <15세기국어의 '-ㄴ가' 의문문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4.
- 김종태(1993), <15세기국어의 안맺음씨끝 체계에 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 안병희(1965), <후기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學術誌》 6(전국대), (재수록: 《국어사 연구》, 1992, 문학과지성사).
- _____(1967), <문법사, 한국어발달사(중)>, 《한국문화사대계》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현규(1995), 《국어 형태 변화의 원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현희(1982),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주경미(1996), <‘박통사’·‘노결대’언해에 나타난 의문법의 통시적 연구>, 《國語學》 27.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_____ (197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 《세립한국논총》 1, 샘문화사, 1977.
- _____ (1989), 《16세기 우리옛말본》, 샘문화사.